

화용론(Pragmatics)

서론

- 불안정한 과학으로서의 화용론은 그것의 많은 이론과 학문적 체계 중 어느 것도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패러다임에 가깝지 않다.
- 화용론의 영역에 대한 합의가 없다.
- Charles Morris의 정의: '기호와 해석자의 관계에 대한 과학'
- 화용론은 언어 형식, (전달된) 메시지 및 언어 사용자 간의 상호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
- 화용론에서 탐구하는 질문들
 - 사람들은 그들의 발화에서 단어나 구절이 그 자체로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가?
 - 그들은 어떻게 이러한 해석을 하는가?
 - 왜 사람들은 어떤 것을 다른 방식이 아닌 한 방식으로 말하거나 해석하기로 선택하는가?
 - 맥락적 요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언어를 생산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언어 사용에 대한 화용론적인 관점

Conversation Sample

Kiki: Where are you going tonight?

Sharon: Ministry.

Kiki: Ministry?

Sharon: Ministry of Sound. A club in London. Heard of it?

Kiki: I've been clubbing in London before.

Sharon: Where to?

Kiki: Why do you want to know?

Sharon: Well, I may have been there.

Kiki: It was called 'The End'.

Sharon: Nice one!

Kiki: I hope you have a good time at the Ministry.

대화 샘플

Kiki: 오늘 밤에 어디 가니?

Sharon: Ministry.

Kiki: Ministry?

Sharon: Ministry of Sound. 런던에 있는 클럽. 들어봤니?

Kiki: 예전에 런던에 있는 클럽에 가 본 적이 있어.

Sharon: 어디에?

Kiki: 왜 알고 싶어?

Sharon: 글썄, 내가 거기에 갔었을 수도 있어서.

Kiki: 'The End'라고 하는 데야.

Sharon: 멋진 곳이야

Kiki: Ministry. 에서 좋은 시간 보내 시기 바래.

화용론적 의미

- 화용론은 언어적 표현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연구와 관련이 있다.
- 화용론의 한 가지 과제는 대화 참가자가 단어와 구의 탈맥락화된 의미에서 어떻게 맥락 속의 의미를 파악하는지 설명하는 것이다.
- 탈맥락화된 의미에서 맥락에서 파생된 의미로의 이동에 관계하는 요소들
 - 지칭하는 대상의 지정
 - 직접 전달되는 내용 파악 (언어적 단서에서)
 -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내용 파악(비언어적 단서에서)

지칭하는 대상물의 지정

-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물을 지정해야 한다.
- 대상물과 단어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듣는 사람은 화자가 지정하려는 대상물을 추론해야 한다.
 - 이 추론 과정이 너무 어렵다면 의사소통이 문제를 겪을 것이다.
 - 대화에 협조적이 되기 위해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양을 예상해야 한다.
- 지칭은 화자가 대상이나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 선택한 단어 또는 구가 화자가 의도한 대로 해석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사회적 행위이다.
- 대상을 지칭하는 과정은 명시적인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지시적 표현의 해석을 요한다.

직간접적으로 전달되는 내용의 파악

- 화용적 의미(발화 의미가 맥락적으로 결정된 것)를 확인하는 과정은 모호한 언어 표현을 해석하여 그것이 표현하는 개념과 생각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 발화의 의미는 사용된 단어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지 않는다.
- 화자가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와 화자가 그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려는 생각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
 - 이 간격은 전달자가 발화를 통해 전달하려는 내용에 대한 수신자의 추론으로 채워진다.
 - 화용론은 주어진 발화에 의해 표현된 생각이 수신자에 의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 발화의 중요성은 무엇이 함축되었으며 무엇이 간접적으로 의사소통되었는지에 있다.

(의사소통에서) 협력의 원칙(Paul Grice) 1

- 협력의 원칙
 - 진정성
 - 정보성
 - 관련성
 - 스타일(간결성과 명확성 측면에서)
- Grice는 대화의 네 가지 원칙을 소개했다: 질, 양, 관계, 방식.
- Grice의 요점은 사람들이 항상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원칙은 의사소통의 기초가 되는 무언의 가정이라는 것이다.
- 화자가 하나 이상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화자는 청자에게 대화의 함축성을 해결하기 위해 구두로 표현된 의미와 다른 의미를 찾으도록 촉구할 수 있다.

(의사소통에서) 협력의 원칙 2

- Grice의 이론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 참가자의 선호도와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또는 대인 관계 요인의 영향을 포함하지 않았다.
 - 맥락이 발화에 의해 표현된 사상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는다.
- 의사 소통과 관련된 추론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화용론에 대한 인지적인 접근 방식으로 채택되었다.
- 관련성 이론(Sperber 및 Wilson에 의한)은 의사 소통과 관련된 추론 과정이 관련성 원칙이라는 단일 원칙에 의해 제한이 될 뿐 협력 원칙, 질의 원칙(진실성), 양의 원칙(정보성), 방식(스타일)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의사소통에서) 협력의 원칙 3

-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치가 있는 새로운 정보를 찾는 경향이 있다.
- 우리가 발화를 할 때 우리는 의도된 수신자에게 발화가 그들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
- Kiki의 "오늘 밤 어디 가니?" 라는 질문에 Sharon은 Kiki가 어떤 종류의 정보를 갖고 싶어하는지, 이 유형의 정보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이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내야 한다.
- Sharon의 대답은 그 이유를 궁금해 하는 Kiki에게 바람직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
- 의사소통의 의미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은 언어 형식과 의사소통 기능 간의 구별에 관한 것이다.

(의사소통에서) 협력의 원칙 4

- John Austin & John Searle: 언어는 행동의 한 형태(화행 (speech act))로 보아야 한다. 말할 때 우리는 요청하기, 진술하기, 사과하기 등과 같은 일을 '한다'.
- Austin과 Searle은 화행을 다른 범주로 분류하고 화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발견하려고 했다.
- Where are you going tonight?*
 - Kiki의 의문문의 발화력(정보요구(?), 암시/힌트(?))은 무엇이었는가?
- 화행 이론이 언어 형식과 의사소통 기능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이러한 질문을 살펴보는 반면, Grice의 접근 방식은 대화와 맥락 지식의 원칙인 협력의 원칙의 관점에서 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적 요인이 대화에 미치는 영향 1

- Grice의 대화 이론, 특히 대화가 일련의 규범에 의해 지배된다는 그의 견해는 의사소통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고 반영되는 사회적 규칙성을 조사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 사회적 요인은 맥락(참가자들이 의사소통 행위를 하고 해석하는 데 사용하는 일련의 가정)의 일부로서 가장 잘 분석된다.
- 사회적 화용론은 추가적인 의사소통 규범을 도입했다.
 - Leech는 공손함 원칙이 Grice의 협력의 원칙에 필요한 보완책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이 종종 공손함의 이유로 협력의 원칙을 어기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균형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화 상대가 처음부터 협력적이라고 가정하게 한다고 하였다.

사회적 요인이 대화에 미치는 영향 2

- Leech는 협력의 원칙과 함께 작동하는 '겸손의 원칙'과 합의의 원칙과 같은 공손함의 원칙을 제안하였다.
- 화용론적 관점은 주어진 화용론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적 전략에 중점을 둔다.
 - 요청을 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 전략: 직접 요청, 관습적인 간접 요청 또는 비관습적인 간접 요청
 - 사람들의 화용언어적 관습의 불일치는 화용언어의 실패로 이어진다.
- 사회화용론적 관점은 사람들의 전략 선택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기반 평가, 신념 및 상호작용 원칙에 중점을 둔다.
 - 참가자들 간의 관계(가깝거나 멀거나, 동등하거나 같지 않거나)와 그러한 맥락에서 특정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같은 요소와 관련된 사회적 판단과 사람들의 사회화용론 관습의 불일치는 사회화용론 실패로 이어진다.

사회적 요인이 대화에 미치는 영향 3

- 사람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설명하는 모델은 Brown과 Levinson의 공손함 모델이다.
- 얼굴(face)은 모든 구성원이 스스로 주장하고 싶은 대중적 자아상이다.
- 긍정적인 얼굴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미지를 높이 평가하고 승인 받기를 원하는 것을 반영한다.
- 부정적인 얼굴은 영토, 보호구역, 방해받지 않을 권리(즉, 행동의 자유 및 강제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모든 사람의 주장을 반영한다.
-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모든 발화는 잠재적으로 청자에게 부과된다. 발화를 함으로서 화자가 청자의 주의를 요청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 주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발화에 의해 전달된 정보가 청자에게 바람직하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

사회적 요인이 대화에 미치는 영향 영향 4

- 화자가 부담을 지운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정중한 언어적 행동이 개발되었다.
 - I know I'm interrupting you, but..., Could you...(당신을 방해하는 것을 알지만 ~좀 해주시겠습니까?) I'd be grateful if...(만일 ~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Heard of it?*”(들어봤니?): Kiki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얼굴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다.
- “*Where are you going?*”:?” : 발화는 정보에 대한 요청이 아니라 피상적인 친근한 발언으로 의례적인 발언일 가능성이 있는
- 대화의 서투른 시작은 영어로 대화를 적절하게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Kiki의 불확실성을 반영한다.

사회적 요인이 대화에 미치는 영향 5

- 화자는 요청이나 도전과 같이 얼굴을 위협하는 발언을 어떻게 표현할지 결정할 때 세 가지 주요 변수를 고려한다.
 - 청자와 화자 사이의 권력의 차이(평등/불평등의 양, P로 표시됨)
 - 그들 사이의 거리-근접성(D로 표시)
 - 발화 내용의 부담 정도(순위는 R로 표시)
- 영향력 있는 힘이 클수록 거리가 멀고 부담이 클수록 화자는 더 신중하고 간접적이다.
- Kiki의 간접적인 질문 "Where are you going tonight?"은 긍정적인 공손함 전략을 사용하는 그리스 경향(특정 수준의 친밀도를 가정하는 접근지향 전략)을 반영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공손함 전략(부담지우는 것을 인정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영국사람들의 경향과 대조적이다.

대화의 패턴과 구조 1

- 대화 패턴은 대화분석의 틀 내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었다.
- 대화분석은 사람들이 교대로 대화를 나누는 상식적인 관찰에서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데이터에 대한 설명에 의존하여 대화 교환의 패턴화와 관련된 규칙을 발견하는 접근 방식이다.
- 질문 (*Where to?*) 과 답 (*It was called 'The End'.*) 으로 구성된 인접쌍은 다른 인접쌍 (*Why do you want to know?/Well, I may have been there*)에 의해 방해받는다. 따라서 인접쌍에 끼어든 쌍은 삽입쌍을 형성한다.

대화의 패턴과 구조 2

- 삽입쌍과 같은 패턴은 화용론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얼굴'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화용론은 이러한 패턴이 발생하는 이유를 시도하고 설명한다.
- 인지심리학적 접근방식으로 작업하는 화용론자들은 대화 분석가가 관찰한 패턴이 인간의 인지 및 의사소통의 일반 원칙을 따르고 대화 분석의 대부분의 도구와 순서를 따르는 규칙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